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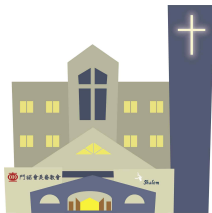
2023 THE KIMS' NEWS 김규동 & 최미정 선교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삼하22:30)



1. 떠남: 순례자에게는 주도권이 없다. 다만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나아갈 사명만 있을 뿐이다. 동방교회의 천오백년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복음과 선교”에 집중했기 때문임을 다시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본다. 멈추는 순간 복음도 멈추게 된다. 근 이년간의 대만 현지교회 사역을 자진하여 내려놓고 더딘 북방선교를 향해 우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만에 우리마저 발을 담글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또다른 시도를 위해 떠나와야 했습니다.



2. 계속되는 시련: 중국선교 30년의 종합선물 보따리에는 추방, 코로나, 싸늘함, 가시방석, 거품빼기, 수술, 사고, 재할, 오해, 후원중단, 추위 한 파, 그 다음은 뭇입니까? 봄이로군요~~~ 2018년 12월 중국선교 추방이후, 일련의 경험... 이렇게 선교해왔습니다. 일월 이월 참으로 추웠지만 따스한 분들의 배려와 위로에 봄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3. 간증: 광주 CTS에서 동방교회에 관해 소개..... 초대교회가 바라본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게 비춰질까? 140년의 한국 기독교는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좀 더 겸허히 현실의 받아들이고 성찰과 더불어 재도약을 천명해야 하겠습니다. 당대 경교가 근 3백년을 유행했음에도 끝내 세속정권을 막아서지 못해 무너짐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타 문화권에 대한 우월감에 앞서 복음의 순수성 회복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 전역 명~받았습니다!: 추위와 지뢰밭 투성인 GP 최전방 생활, 온몸으로 견뎌온 시온이를 안전하고 무사히 제대케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온이는 현재 대2로 복학하여 알바도 병행하면서 늦춰진 학업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꿈인 시온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소망해봅니다.

5. 실크로드 고대기독교 유물전시관 설명회: 광주에 머무는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안내와 해설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권에서 일찌기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키를 바랍니다.



6. 파파야 중국 지도자 훈련반 재가동: 3월부터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ZOOM을 이용해 매주 말씀(신학)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섬겨주신 동역자 목사님들께 감사. 그동안 중국교회는 정부의 핍박으로 모임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섬길 수 있어 너무 다행 감사입니다.

7. 무릎연골 수술 후 재활 그리고 최미정선교사 교통사고 후 안정 가운데 새벽 중보기도 제개: 동네 사우나에서 수중 스트레칭으로 근육 강화 중입니다. 이젠 오르막 내리막길도 제법 잘 걷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었습니다. 조만간 실크로드의 설산을 향해 내달리고 싶은 열망이 강해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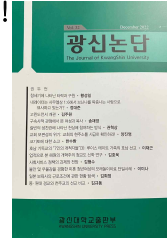
또한 새벽 5시-7시까지 꾸준히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와 연관된 모든 분들과 교회와 가정에 선교지에 주의 은혜 가득 임하소서!



9. 중국신학교 강의사역: 하베스트, 수원세계선교신학원, 아선, GBC... 그리고 파파야 지도자 훈련학교 사역. 기독교회사, 중국 이단&사이비종파 연구, 고대아시아 기독교동전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만들고 세우는게 큰 선교입니다. 그 다음은 “다음세대 리더” 세우기!!!!

10. 문서출판 마무리 작업: “동방교회 도록” 80% 완료.... 상반기까지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계획인데.. 이어서 출판비용과 배부까지 산넘어 산..... 일단 원고를 깔끔이 마무리 짓도록 하자!

광신논단에 소논문을 실었습니다. “몽·원대 경교와 가톨릭의 선교 비교”



11. 파송교회가 없다: 수년 전부터 파송교회가 선교후원을 줄이더니 이번엔 아예 중단기로 결정했다고 간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한마디로 파송선교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오래전 교회와 저희는 파송을 전제로 훈련절차와 마지막 사인으로 나름 성대한 파송안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울초 아무런 이유 여하 설명없이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선교행전에 드러난 동족들의 술한 방해에도 원망없이 다시 주를 의지함으로 일어섰듯이 주의 선하심과 도우심으로 맡겨진 성직을 수행토록 합니다. 갇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전파의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12. 실크로드 사역을 위한 재도전: 이러한 시련의 연속으로도 우리의 사명을 멈추게 못할 것입니다. 사막교부들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떠남인 것처럼 우리는 또다른 세상으로 항해의 뜻을 올리려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마지막 분부하신 성직을 수행토록 합니다!



✚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① 책임지는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그리고 각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소서!
- ② 사월 대만교회 5명의 제직들 방문과 교제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적 안목이 열리도록!
- ③ 신학교 강의와 문서출판(하베스트, GBC, 세계선교신학원, 아시아선교신학원, 파파야)
- ④ 저의 무릎연골 회복과 최미정선교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
- ⑤ 6~8월 몽골과 실크로드 정탐 및 향후 사역지 선정을 위해!
- ⑥ “동방교회 도록” 출판비용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⑦ “파파야 지도자 훈련”에 참여하는 사역자와 수강하는 중국 리더들에게 은혜 있기를!

연 락 처: 한국 010-2510-7890(김규동) ; max4kmg@gmail.com

후원계좌: 외환: 010-04-06396-263 (예금주: GMS)

2023-04-02 김규동 최미정 요한 시온 배상

